

“전국 최대 단위노조 조직화합 최선”

경북교육노조 제4대 위원장 김종기 당선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 제4대 위원장에 김종기(54) 후보가 당선됐다.

경북교육노조는 지난 1일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대 임원선거(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동반출마)에서 기호1번 김종기(청도교육지원청)-박흥기(도교육청공보담당관실)-정원상(도교육청교원지원과)후보조가 전체 투표자 2,665명(64.22%) 중 1,651(61.95%)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당선된 김종기 위원장은



왼쪽부터 박흥기 수석부위원장, 김종기 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

청도교육지원청 직협회장을 시작으로 경북교육노조 지부장, 수석부위원장,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의 초대, 제2대 사무총장과 제4대 위원장을 거쳐 현재 제5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당선된 박흥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경북교육청 공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사무총장, 경

북교육노조 홍보국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정원상 사무총장은 경북교육노조의 조직국장과 대의원을 역임했다.

김종기 위원장 당선자는 “경북교육노조는 단위노조로서는 전국 최대의 조직인 만큼 다양한 직렬들의 특성과 현안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조직을 화합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면서 “임기가 시작되면 단체교섭을 통해서 현안 사안들을 풀어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4월15일부터다.

김영곤기자

이사람

경북도교육청, 제 4대 노조위원장에 김종기 씨 당선

“직렬들 존중·이해하며 ‘조직 화합’에 주력”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 4대 위원장에 김종기 후보가 당선됐다.

경북교육노조는 지난 1일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대 임원선거(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동반출마)에서 기호1번 김종기(청도교육지원청)-박흥기(도교육청공보담당관실)-정원상(도교육청교육지원과)후보조가 전체 투표자 2,665명(64.22%)중 1,651(61.95%)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날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당선된 김종기 위원장은 청도교육지원청 직협회장을 시작으로 경북교육노조 지부장, 수석부위원장,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초대, 제2대 사무총장과 제4대 위원장을 거쳐 현재 제5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당선된 박흥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경북교육청 공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경북교육노조 홍보국장과 사무총장을 역임



왼쪽부터 박흥기 수석부위원장, 김종기 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

했다. 정원상 사무총장은 경북교육노조의 조직국장과 대의원을 거쳤다.

김종기 위원장 당선자는 “경북교육노조는 단위노조로서는 전국 최대의 조직인 만큼 다양한 직렬들의 특성과 현안을 존중하

고 이해하면서 조직을 화합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임기가 시작되면 단체교섭을 통해서 현안 사안들을 풀어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4월15일부터다. 류기찬기자